

광주 아파트 분양 이번주 4000세대 쏟아진다

중앙공원 롯데캐슬·운암자이포레나 대규모 단지 2곳 청약접수 고금리·고분양가 논란 속 분양...청약성적, 향후 시장에 큰 영향

이번 주 광주 청약시장에 40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기로 해 청약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 분양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세대가 한 주 만에 시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들의 청약 성적이 추후 광주 분양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광주 청약시장은 경기침체 속에 고금리와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 이들 대형단지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1·2·3단지 1순위 청약은 17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BL·2BL-1·2BL-2가 1순위 청약 접수에 나선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1192세대, 중앙공원 롯데캐슬은 2364세대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일부 임대 물량을 포함해 두 단지에서 시장에 내놓는 세대수만 무려 3964세대에 달한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광주에서 약 1만 4000세대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미 청약을 끝낸 약 5000세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번 주 청약하는 물량은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그러나 올해 광주 아파트 청약시장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4000세대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서 흡수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당장 올해 청약에 나선 7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7대 1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순위까지 확대한 수치로, 여기에 일부 인기 세대에 청약이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분양에 실패했다고 보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와 중앙공원 롯데캐슬 청약 성적도 긍정적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어느새 지역 신축 아파트 평당(3.3㎡) 분양가가 2000만원에 달한데다 단기간에 두 단지의

시 평당 2000만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평당 약 2300만원, 중앙공원 롯데캐슬은 평당 약 2500만원 수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BGU)가 발표한 2024년 3월말 기준 광주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인 평당 1888만원을 상회한다. 여기에 운암자이포레나의 경우 재개발 단지로서 이미 조합원들이 높은 층수의 세대 및 타입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반분양에 적극적인 소비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운암자이포레나는 전체 3개 블록, 3214세대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이 1192세대다. 다만 두 단지 모두 입지와 브랜드면에서 앞서 청약에 나선던 단지들 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

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특히 중앙공원 롯데캐슬의 경우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장점을 살리면서, 이른바 '특화'를 무기로 부촌 이미지를 갖추고 소비자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당초보다 미뤄질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로 인한 급격한 국제 정세가 악화로 추후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또다시 상승할 수도 있어, '내 집' 마련이 시급한 소비자를 상대로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주택업계 관계자는 "두 단지의 청약 성패 여부가 앞으로 광주 분양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에서도 크게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송정동 광카롱' 오픈 1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광카롱' 직원들이 다양한 마카롱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광주시 송정동의 마카롱 맛집 '광카롱'은 광주점에 신규 입점했다. 광카롱은 시그니처 메뉴인 조개모양 마카롱 '조개롱'과 필링이 가득한 '똥카롱' 외에도 20여 종류의 다양한 마카롱과 선물용 '조개롱 케이크', '똥카롱 케이크' 등을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효성티앤씨 페플라스틱 재활용 티셔츠 출시

제주개발공사 등과 협업 '리사이클 에디션' 4종 제작

효성티앤씨는 제주개발공사, 디스커버리 익스피디션과 협업해 제주에서 수거된 페플라스틱으로 만든 '제주 리사이클 에디션 티셔츠' (사진) 4종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개발공사가 제주 해안에 버려진 투명 페트병과 페플라스틱을 수거했다. 이를 재활용해 효성티앤씨가 친환경 섬유 '리젠'을 생산하고, 디스커버리 익스피디션이 리젠으로 티셔츠를 만들었다. 제품 생산에는 페플라스틱 총 2t이 재활용됐다. 이 같은 협업이 페트병과 페플라스틱 등의 바다 유입을 막고, 자원 선순환 시스템과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김지형 효성티앤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친환경 협업을 확대해 자원 선순환 시스템 및 친환경 시장을 리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편의점·대형마트, 불펜부터 가공란까지 가격 줄인상

내달 과자·가공 김도 오를 듯 충선 끝나자 전방위 가격 인상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납품단가가 오르면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불펜과 라이터·생리대 등 생필품과 가공란 소비자 가격이 다음 달 1일 일제히 오른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소비자 가격은 이르면 오는 18일 섬유유연제와 생리대 등 생필품 중심으로 먼저 오르고 다음 달에 과자와 김, 일부 라면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4·10 총선이 끝나자 그동안 정부 눈치를 보던 외식·식품·생필품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다. 16일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대형편의점 4사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모나미 153불펜 가격은 3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33%) 오르고, 스틱불펜도 500원

에서 600원에 판매된다. 스위트플라이터는 800원에서 900원으로, 미니플라이터도 600원에서 700원으로 100원씩 오른다. 도루코 페이스면도기는 1900원에서 2100원으로 200원(10.5%), 페이스4면도기(3입)는 5200원에서 5700원으로 500원(9.6%) 각각 인상된다. 뉴트로지나 딥클린포밍클렌저(100g) 가격은 9900원으로 현재 8900원보다 1000원, 11.2%나 된다. 엘지유니잡의 '썬피 바다피프' 내물에 순한면 생리대 중간 크기(4개)는 2400원에서 2600원으로, 대 사이즈(16개)는 9400원에서 9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들 제품의 편의점 소비자 가격이 일제히 오른 것은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 제품 납품가격이 동반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가공란 가격도 오른다. 계란 2개가 들어있는 감동란과 죽염동 훈제란은 각각 2200원에서 2400원으로 200원(9.1%)씩 오른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

서 판매되는 생필품 가격도 잇달아 오른다. 섬유유연제 피죤 12개 품목은 10~20%, 썬피 생리대 12개 품목은 6~7%가량 각각 인상된다. 업체마다 인상 시기가 다르지만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오른 가격에 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과자와 가공 김, 자장란면 등 소비자 판매가격도 다음 달에 인상될 분위기가 감지된다. 코코아 가격은 지난해 1~10월 월별 평균 t(톤)당 2천~3천달러대에서 지난 10월 1만411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설탕 가격도 강세를 보인다. 마른김 도매가격은 지난 12월 기준 1속(100장)에 1만4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5% 올랐다. 전날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는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일제히 1900원씩 인상했고, 파파이스도 제품 가격을 평균 4%(100~800원) 올렸다. 쿠팡은 지난 13일부터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고향기부 답례품 모바일 카탈로그' 시연회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지난 15일 하나마트 남양점에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모바일 카탈로그' 출시기념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바일 카탈로그는 모바일 QR코드(사진)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페이지 내에 전남 고흥사랑기부 농축산 답례품 정보를 품목·지역별로 분류해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톡, SMS, E-mail 등을 통해 웹페이지 공유도 가능하다. 또 페이지 내에 고흥사랑이음사이트(ilovegohyang.go.kr) 연동을 통해 손쉽게 기부 참여와 답례품 신청도 가능해 고흥사랑기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남농협은 시연회 이후 하나마트 방문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카탈로그 공유하기 이벤트'를 개최해 전남농협의 주요 답례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했다. 박종택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 참여에 모바일 카탈로그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이



용과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전남농협은 다양한 답례품 개발을 통해 전남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고흥사랑기부 붐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추천 라이센스 브랜드 코닥·UFC 소비자 주목

이미 이름이 알려진 업체의 브랜드 이름을 빌려 런칭한 의류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신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코닥은 스포츠한 터치감과 시원한 소재감으로 젊은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코닥은 필름과 아날로그 카메라로 유명한 회사로, 친숙한 로고와 브랜드 네임을 기반으로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코닥은 여름 대표 상품으로 '크로마 브리즈 반팔 후드 아노락'과 '크로마 브리즈 반바지'를 판매 중이다. 지난해 8월 광주신세계 신관 지하 1층에 입점한 'UFC 스포츠' 역시 남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 UFC 스포츠는 스포츠 제품의 '레드라인'을 중심으로 캐주얼 의류가 포함된 화이트 라인과 프리미



16일 광주신세계 신관 지하 1층 UFC 매장에서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엄 품목의 블랙라인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갖췄다. 특히 부드러운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운동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는 'UFC 텐션 비코고 머슬핏 반팔티셔츠'와 UFC 전 미들급 챔피언 알렉스 페레이라 그래픽이 포인트인 '포이탄 릴렉스핏 반팔'의 인기가 높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달리 환율 고공행진...장중 1400원선 터치

2022년 11월 이후 17개월만에 최고 원·달러 환율이 16일 15원 넘게 급등하며 17개월 만에 1400원선을 터치했다. 이날 환율은 5.9원 오른 1389.9원에 개장해 장중 상승 폭을 키우면서 한때 1400원선을 터치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11월 7일(장중 고가 1413.5원)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상승을 거듭하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최종 10.5원 오른 1394.5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은 파죽지세로 상승 중이다. 지난 5일 1350원선을 넘어선 이후 증가 기준 11월 1364.1, 12월 1375.4원, 15일 1384.0원 등으로 매일 10원 인박 오르면서 연고점을 경신했다. 환율 상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한 이후 이스라엘도 보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통해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실물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09.63 (-60.80)
↓ 코스닥	832.81 (-19.61)
↑ 금리(국고채 3년)	3.469(+0.029)
↑ 환율(USD)	1394.50 (+10.50)